

보 도 해 명 자 료 (‘13. 10.22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동양그룹 삼척火電 수주 특혜 의혹”, “동양에 유리한 항목은 배점 늘리고, 불리한 항목은 줄여” 기사에 대한 입장 (‘13.10.22, 조선일보)

1. 기사 내용

- ☐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선정기준이 5차 때에 비해 동양에 매우 유리하게 변경
- ☐ 동양파워는 당초 재무능력 등이 떨어져 사업자로 선정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으나 평가기준에 재무능력이 사실상 빠져 선정

2. 동 보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☐ 동 보도는 사실관계에 많은 오류가 있고 관련의혹도 전혀 근거없음
 - 6차 계획 평가는 유례없이 높은 사업자 경쟁 속에 이루어져 어느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

< 수급계획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절차 >

- ☐ 건설의향 평가기준은 3차 계획시 최초로 도입된 이후 정책환경과 계획의 방향에 따라 매 차수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설비계획소위원회에서 수정을 해왔음
 - 6차 계획에서는 최근 전력난의 원인으로 지목된 발전소 준공 차질, 송전선로 갈등 문제 등 5차 계획 이후 변화된 정책환경을 반영하여 설비계획소위원회에서 기준을 검토하여 확정된 것임

- ☐ 확정된 평가기준은 사업자 평가서류 접수(‘12.10.25) 2개월 전에 미리 공개(8.24)하였으며,
 - 특히, 접수 마감(10.25) 전에 세부 평가기준까지도 모두 공개(10.22)하여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음
- ☐ 한편, 건설의향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풀(139명)에서 당일새벽 무작위추첨을 통해 평가위원회를 구성, 엄정한 평가 실시
 - 평가 직후 사업자에게 항목별 개별점수를 고지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재심(‘13.1.25)도 진행

< 항목별 평가기준 변경내용 >

- ☐ 지역수용성 평가 강화
 - 동 기사는 5차 계획에서 시군구 동의서와 주민동의서가 각각 20점, 8점으로 배정되어 있었다고 보도하였으나,
 - 5차계획에서 지자체 동의서는 16점, 주민동의서는 8점(주민동의 6.4점, 주민설명회 1.6점)으로 사실과 다름
 - 5차 계획에서는 지자체 동의와 사업자가 제출한 주민동의서만으로 지역수용성을 평가하여 지역주민의 의사확인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
 - 6차 계획에서는 발전소 준공지연·취소 최소화한다는 계획방향에 따라 지역수용성 평가항목을 상당부분 개선
 - 주민동의서 평가 강화 : 지역민원으로 인한 건설지연·취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동의서 배점을 상향조정(8점→15점)하는 한편, 주민동의서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가 아닌 지자체가 직접 제출하도록 변경
 - 지방의회 동의 추가 : 주민동의서 징구대상(발전소 주변 5km 이내 또는 최소 2천세대 이상)에 포함되지 않은 주민의사 확인, 지역에서 필요한 관련절차에 대한 이행성 제고를 위해 추가

□ 사업추진 여건 평가

- 동 기사는 부지항목이 5차계획 10점에서 6차계획에는 부지확보 10점, 입지적정성 15점으로 배점이 크게 늘었다고 보도하였으나,
 - 부지 점수는 부지확보 문제로 건설 지연되는 사례들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적기준공 촉진을 위해 8점에서 10점으로 2점 상향되었음
- 특히, 입지적정성(15점) 항목은 부지가 아닌 계통여건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 6차계획에서는 최근 송변전설비 건설 관련 갈등 증가를 고려하여 계통여건 평가비중을 크게 강화(12점→25점)한 것임
 - 계통여건 평가는 발전소 건설시 계통에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영향(과부하, 고장전류, 과도안정도)등에 대한 평가이므로 폐광부지에 발전소를 짓는 것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음
- 연료 및 용수확보는 실제로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 여부에 대해 평가하도록 개선하였으며 계통여건 등 타 지표 비중 확대에 의해 결과적으로 비중 소폭 하향된 것임

□ 재무·운영능력, 환경성 등 평가

- 5차계획에서는 민간사업자에게 별도의 평가없이 일괄적으로 민간 가점 4점을 부여하였으나,
 - * 부지·접속설비를 기 확보한 공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평가도입시부터 존재
- 6차계획에서는 기존 일괄가점 방식을 탈피하고 재무·운영능력에 대한 평가를 새로 도입하여 사업자별 차등평가를 실시하였고,
 - 평가위원회는 평가당시의 객관적 재무지표를 토대로 평가 실시
- 따라서, 재무능력에 대한 평가항목을 줄였다는 기사는 전혀 사실과 다르고, 오히려 기존에 없던 평가항목이 6차계획에서 추가 반영

○ 마찬가지로,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평가항목을 줄였다는 기사내용도 전혀 사실과 다름

- 기존 5차계획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배점이 8점이었으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6차계획에서는 환경평가비중을 14점으로 상향조정하였음

< 조선일보 보도내용 및 사실관계 >

	5차 계획	6차 계획(동양그룹 사업자로 선정)	동양파위에 유리하게 작용한 점 (조선일보)	사실관계
지역 주민 동의 관련	지자체 동의서 (20점) 16	지자체 의회 동의서 (10점)	동양그룹은 삼척 향토 기업, 지자체 의회 주민 동의서 받기에 유리	○조선일보가 보도한 5차계획의 배점자체가 사실과 다름 ○지역동의를 적기준공에 가장 중요 ○특히 주민동의가 가장 중요하여 비중 조정 ○주민동의서 징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주민들의 의사 확인, 사업추진 이행성 강화 위해 지방의회 동의 추가한 것
	주민 동의서 (8점) 6.4 *설명회 1.6	주민 동의서 (15점)	삼척시 의회 동의서 받지 못한 기업 3곳 (삼성물산, STX, 남부)은 탈락	
입지·부지 관련	부지 확보 (10점) 8	입지 적정성 → 계통 지표 (15점) 부지 확보 (10점)	동양은 석회석 폐광 부지에 발전소를 지을 계획이어서 부지와 입지 적정성에서 높은 점수 받음	○입지적정성은 계통평가 항목으로 부지와 무관
용수 관련	용수 확보 (5점) 4	용수 확보 (2.5점)	동양파위의 발전소 부지는 바다에서 멀리 펌프를 통해 용수 확보해야 함, 용수 확보에 불리	○계통여건 등 중요 지표 배점 상향에 따라 상대적으로 축소
재무 관련	별도 항목 없음	재무능력 신설 (3점)	배점 자체가 적어 당락에 영향을 주지 못함, 동양은 2.14점 받음	○6차계획에서 신규 평가 항목으로 반영, 평가

※ 관련 문의 : 전력산업과 박성택 과장(02-2110-4897), 성 시내 사무관(5529)